

청소년 독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새마을문고중앙회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등서 세미나 개최

청소년들의 독서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지난 달 24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씨(미림여고 교사)는 독서전문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단답식 고교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지난 달 2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대현씨(아동문학가, 여의도고 교사)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독서행태를 인정해야 올바른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가 밝히고 있는 독서교육의 실상을 살펴본다.

단답식 시험이 청소년 독서 저해

김대호 (「현행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따른 독서지도의 문제점과 대책」)——수학능력시험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 측정한다는 취지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라는 지적 양의 측정에서 벗어나 “무엇을 얼마나 타당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낼 수 있느냐?”를 평가의 중심사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법과과학 영역내의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교과별 독서지도가 필요하고, 터득한 영역별 지식을 총체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독서교육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독서교육은 시험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해서 시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독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학입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양면적 효과를 거두면서, 근간을 이해하는 원론적 독서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시간이 따로 마련되

어 학습자로 하여금 읽고, 쓰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지도할 전문교사도 필요하다.

독서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문제를 인식하고 책을 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간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독서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고교교육은 문제훈련식 학습이 되고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교과목 중 문학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나 지정된 수업의 차시를 고려할 때 독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시간에 독서감상문 발표나 토론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문학작품 이외의 글은 대할 기회가 없어 비판적, 분석적 글읽기 등 독서의 목적을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둘째, 내신성적 반응을 위한 학교내 시험이 절대답안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내신등급 산출의 편익을 위한 행정업무 쪽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식이나 내용을 파악해 내는 사고과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다양한 문헌을 접하는 기회가 적다. 다양한 읽기 자료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학습자들 모두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구비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독서에 대한 열의와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독서생활의 일반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



사진은 지난 9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새마을문고중앙회 독서대토론회.

해서 학생 개인별 독서활동기록부를 비치하고 독서활동 상황을 기록하는 방법도 썩 좋을 듯하다. 학생들이 실행한 자율독서나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결과를 교사들이 수시로 학습지와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 나타난 실적을 1학년때부터 기록해 주고 적당한 평가와 보상을 해준다면 비록 타의적이지는 않지만 독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충수업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보충수업 시간에 교사는 자기 전공분야에 관한 서적이거나 문헌 중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하고 재편집하여 학생들에게 읽히거나, 조를 편성하여 토론을 하게 하는 등 협력식 수업을 전개해갈 때 교육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두 학급을 대상으로 하여 한 학기동안 실시한 결과, 학습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도

적극성을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 새로운 독서행태 인정해야

조대현 (「청소년의 독서행태 변모와 바람직한 대처방안」)——요즘 청소년의 독서행태 중 우선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이들이 시간 공간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할 수 있으며, 濫讀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독서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낸다거나 특정한 장소를 찾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한자리에 앉아서 장시간 독서에 몰입하지도 않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지도 않는다.

기성세대라면 당연히 청소년들의 독서가 진정한 독서인지 의문을 갖겠지만, 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터득하지 못한 또 하나의 정신기능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책임의 원칙: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한스 요나스 지음/이진우 옮김 / 384면 / 9,000원

한스 요나스가 지구의 종말이라는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실존 상황에 대해 고찰한 환경 철학서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기존의 전통윤리학으로는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책임의 명법”을 제시한다.

논리적 사고

R.L. 퍼틀 지음/한상기 옮김 / 240면 / 5,500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필요한 기초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일상의 상황에서 좀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 안내서이다. 또한 적절한 사례도 제시되어 있어 입문서로 적절하다.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M. 아놀렛 지음/김홍래 옮김 / 96면 / 4,000원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24권으로 다섯 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무심히 스쳐버리기 쉬운 자연현상과 새앙쥐, 매미, 앵무새 등을 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그림은 색깔과 관찰력을 길러줄 것이다.

콰인의 자연주의 인식론

김영남 지음 / 212면 / 5,500원

철학박사학위논문 제 4권째 책으로, 지식의 문제에 대한 콰인의 입장을 해명함에 있어 필자는 〈자연화된 인식론〉과 규범을 허용하는 “자연주의 인식론”을 구별하고 후자가 진정한 콰인의 주장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